

지포 김구 선생 업적 · 역사적 의의 재조명

부안군, 제13회 문정공 지포 김구 학술대회 개최... 학술 논문 발표 · 종합토론 등 진행

부안군과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호남고전문학연구원(이사장 김기현)이 주관하는 제13회 문정공(文貞公) 지포(止浦) 김구(金九) 학술대회가 지난 24일 오후 1시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3회째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포 김구와 부안 도동서원의 한국유학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운재민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문예정 전북대학교의 '지포 김구 한시(韓詩)전집(全集)장본화(文本化)와 진주(鎭州) 전석(全釋)', 박도식 강릉원주대 교수의 '김구의 4자 김승인(金承仁)이 증정한 강릉향교의 한국 유학사적 위상', 김병기 전북대학교의 '주세붕(周世鵬)의 안향(安珮) 송모(崇謨)와 백운동서원(白雲東書院) 창건에 비춰본 부안(扶安)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의의', 이원석 전남대 교수의 '지포 김구와 원대 초기 유학계의 상황', 김진돈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의 '지포 김구 선생 후손의 중요 금석문 연구' 등의 학술 논문 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 되었다.

부안은 역사적으로 빼어난 인물들이 배출된 유서 깊은 고장으로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지포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실학의 선구자 반계 유흥원 선생, 조선 최후의 유학자 간재 권우 선생으로 이어지는 부안 삼현이 대표적인 인물들로 모두 조선 사상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호남유학의 거두(巨頭)라고 할 수 있다.



부안군과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호남고전문학연구원(이사장 김기현)이 주관하는 제13회 문정공(文貞公) 지포(止浦) 김구(金九) 학술대회가 지난 24일 오후 1시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특히, 지포 김구 선생은 고려시대 문관으로 당시 무신 집권기와 원 간섭기라는 혼란한 시대 흐름 속에서 뛰어난 문장력과 감동적인 성품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을 펼친 정치가인 동시에, 고려말 유학 부흥에 앞장선 학자이기도 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포 김구 선생의 사상을 한 시대의 학문과 사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반추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 개최

군산예술의전당, 29일 바이올린 · 피아노 앙상블 연주

가을의 끝자락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바이올린 & 피아노 앙상블 연주로 11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를 선보인다. 군산시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엘가 사랑의 인사와 브람스와 낭만적 배경 이야기를 지닌 클라라 슈만의 3개의 로망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등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을 친절한 설명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바이올린 성현경은 예원학교, 한양대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최연소로 졸업한 인재로 현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로 제자 육성과 다양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피아노 박다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반주과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리사이틀 반주 및 콩쿨 전문반주자로 활동하며 젊은 연주자로 각광 받고 있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를 관객들이 무대 객석에 앉아 연주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하우스 콘서트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해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티켓링크에서 사전예약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n.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양숙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공연들로 연주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관문 기자

버라이어티 개그쇼 '쇼그맨' 12월 8일 김제서 공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버라이어티 개그쇼 '쇼그맨' 공연이 오는 12월 8일 오후 7시 김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쇼그맨은 박성호, 김원호, 김재욱, 정범균, 이종훈, 김영희, 김지을 등 국내 개그프로를 대표했던 개그맨들이 뭉쳐 개그는 물론 몸개그, 애드립, 저글링 등이 어우러진 신개념의 버라이어티 개그 공연으로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들이 만들어가는 개그와 영화 촬영을 소재로 일반인을 섭외하여 조명감독으로 반사판을 비춰주는 쇼와 맛집 목재가 할머니의 라이브 고민상담 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웃음 가득한 공연으로 준비하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쇼그맨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온가족이 함께 신나게 보낼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관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람권 예매는 2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



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어린이 뮤지컬 극단 발표회 열려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지난 25일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에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어린이들의 고충과 성장을 그린 뮤지컬 'FAME'을 개최했다.

어린이 뮤지컬 극단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지난 3월부터 상상문화센터를 개강하면서 연간 과정으로 준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으며 실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긴 시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해권 어린이창의체험관 체험교육팀장은 "어린이 뮤지컬 극단 발표회는 9개월간 노력하여 만든 작지만 큰 무대이며,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은 물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우리 가족 달려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 연말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가족친화 특별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총력

군산문화도시센터, 현장 평가 준비 박차... 문체부, 12월 중 13곳 선정 발표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사업 서면 평가를 통과해 현장 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권역별 선도도시 13곳을 지정해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내용의 공모 사업이다. 지정 시 예비 사업 기간을 포함한 4년간 최대 200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산문화도시센터는 지난 8월 제5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이 중단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도전하면서 △비전공감테이블, △문화도시 군산 주간 운영 등 문화도시의 광역형 선도모델이 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전개해왔다.

새롭게 전개되는 군산의 '대한민국 문화도

시' 핵심 비전은 '물길로 잇는 시간여행의 관문 도시, 군산'이다. 물길 시간여행이라는 영커 사업을 중심으로 물길의 도시, 창업가 도시, 교류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화숙 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진행 과정과 결정을 존중하며, 지난 3년간 준비·예비문화도시를 거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문화도시 군산이 시민과 함께했던 시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중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군산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준비사업과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문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